

글 박선경 임유이 그림



연재소설

위선의 시대

〈12〉 그 여자 윤희숙

승연의 순서가 되었다. 손목시계를 봤다. 분침이 가리키는 숫자를 확인하곤 1분 안에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67년 양띠입니다, 유일하게 잘하고 좋아하는 외국어가 영어뿐이라서 영문과에 지원했고요.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제 아버지는 일제 시절 양복점을 한 할아버지의 재단 기술을 이어받아 명동에서 양복점을 하시다 지금은 남성 패션복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고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다섯 군데 중 한 군데도 못 간 점이에요.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 됐어요."

남자친구가 없다니까 동기 남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좋아하지 마. 난 여기서 남자친구 사귈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 승연은 손목시계를 흘끗 봤다.

다행히 1분을 넘기지 않았다. 승연은 잠시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날 계획이었다.

누군가가 승연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다. 꿈이 있었던가. 승연은 '오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하려다 말았다.

은영과 눈이 마주쳤다. 은영이 윙크로 만족스러웠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 명씩 자기소개가 끝나자 2학년 과 대표가 돌연 심각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마이크처럼 들었다.

그는 우리들의 목표는 살아 있는 동지들의 뜨거운 피로 쓰러져 가는 민주를 소생시키는 것, 군부독재가 종식되는 것이며 죽어 가는 민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중간중간 박혀 있던 '동지'들이 오른손을 불끈 쥐고 '군부독재 타도하자'를 삼창했다.

갑자기 파티장이 전쟁 준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2학년 과 대표가 선창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저항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우리 민주 투사들은 목숨이 살아 있는 한 군부독재 종식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 민주 투사들이여 결집하라!"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승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갓 들어온 새내기들조차 그의 선창에 '군부독재 타도하자'를 따라 외치고 있었다. 군중심리는 별 게 아니었다.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남이 울면 따라 우는 심리 작용이었다.

어수선한 사이 식당 문이 열렸다. 지난번 과사무실에서 봤던 금테 안경을 쓴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를 본 1·2학년 후배들이 일어나려 하자 그녀는 손으로 그대로 앉아 있으라는 시늉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끝자리에 앉았다. 은영이 승연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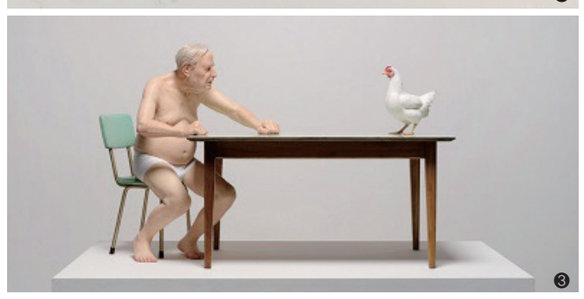
"3학년 윤희숙 선배인데 이화여대에서 운동하다 자퇴하고 이쪽으로 편입했대. 여기 한신 운동권 여학생들 학습 담당."

술잔이 오가는 사이 은영은 운동권 의식화 작동에 대해 승연에게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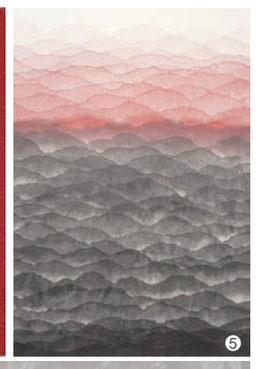
"신입생이 들어오면 일단 시각 교정을 한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가짜 지식을 다 날려 버리는 거지. '전환 시대의 논리' '해방 전후사의 인식' '우상과 이성' 같은 책들을 읽는 거야. 그다음에는 기초 철학과 경제사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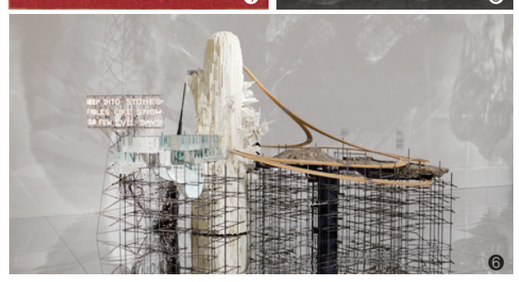












내년 주요 미술관에서는 겸재 정선부터 론 뮤익·루이즈 부르주아·김창열·이불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개인전이 풍성하다. ❶ 국보 정선의 '금강전도'(1734). ❷ 강명희의 서광동리에 살면서. ❸ 론 뮤익의 치킨 맨(2019·86x140x80cm). ❹ 하종현의 '접합 24-27'. ❺ 김민정의 Mountain. ❻ 이불의 '나의 거대 서사_바위에 흐느끼다'(2005). 삼성문화재단·국립현대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국제갤러리·갤러리현대

거장전 러시… 새해 미술관 볼거리 풍성

국립현대미술관 설레는 2025
4월 濠 출신 론 뮤익 조각 전시
8월 서울관선 김창열 회고전

리움 2월 피에르 위고展 주목
호암 겸재 정선展 최대의 관심
국보 '금강전도' 10년 만에 공개

겸재 정선부터 론 뮤익·루이즈 부르주아·김창열·이불까지. 내년 주요 미술관에서는 특정 주제를 잡아 여러 작가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보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개인전이 풍성하다.

10년 만에 공개되는 '금강전도'·김창열 사후 미술관 회고전

22일 미술계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년 4월 서울관에서 호주 출신의 극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 론 뮤익의 개인전으로 새해 전시를 시작한다.

뮤익은 거대한 크기의 극사실 인물 조각으로 유명한 작가로, 아시아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2017년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인 '매스'(Mass)를 비롯한 조각과 사진·다큐멘터리 등 30여 점을 내놓는다.

한국 작가 개인전으로는 8월 서울관에서 열리는 '물방울 화가' 김창열의 회고전이 눈에 띈다.

김창열의 초기부터 뉴욕 시기·프랑스 초기부터 말년까지를 조명하는 전시다.

과천관에서는 11월 '한국 현대 도예의 선구자'로 불리는 신상호의 개인전이 열리고 덕수궁관에서는 12월 '농원'의 화가 이대원의 회고전이 예정돼 있다.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의 첫 전시는 내년 2월 개막하는 프랑스 작가 피에르 위그 개인전이다. 위그는 학제적으로 현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작가로, 올해 베네치아비엔날레 기간 베네치아 푼타 델라 도가나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9월에는 이불 작가의 전시가 열린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40여 년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서베이형(연구 조사형) 전시다. 초기 노래방 작업과 사이보그 연작·200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나의 거대 서사(Mon grand recit)' 연작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리움미술관에서는 3월부터 현대미술 소장품전도 열린다. 조각을 중심으로 유명 소장품과 최근 수집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2016년 플라토미술관(로댕갤러리)이 문을 닫은 뒤로 볼 수 없었던 오귀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 9년 만에 공개된다.

호암미술관에서는 내년 최고 화제 전시로 꼽히는 겸재 정선전이 4월 시작된다.

정선의 주요 작품을 소장한 간송미술문화재단과 함께 여는 전시로, 진경산수화를 비롯해 산수화·인물화·화조영모화(꽃·새·동물을 그린 그림) 등 대표작 120여 점을 통해 정선의 회화 세계 전모를 조명한다. 특히 국보 '금강전도'가 2015년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세밀가귀'전 이후 10년 만에 일반 공개된다.

루이즈 부르주아의 대규모 회고전이 8월에 열린다. 거대한 거미 조각 '엄마'와 '밀실XI(초상)' 등 리움미술관 소장품과 한국에 처음 공개되는 1940년대 초기 회화 등을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는 3월 고미술 기획전인 '조선민화대전'(가칭)이 열린다. 조선시대 민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전시로, 16개 기관이 소장한 120여 점을 모아 소개한다. 이어 8월에는 미국의 추상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3~6월 서소문본관에서 여성작가 강명희의 개인전을 연다. 1970년대 초 프랑스로 이주해 국내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작가의 작업 세계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전시다.

북서울미술관에서는 이건희컬렉션의 한국근현대작가 10명의 작업을 소개하는 '그림이라는 별세계-이건희컬렉션과 한국근현대작가'전이 4월에 시작되고 일본계 영국인 작가 크리스찬 히다카의 개인전은 6월에 예정돼 있다.

하종현부터 이진주까지…갤러리현대 55주년 특별전도

주요 갤러리에서도 90대 원로 작가부터 40대 초반 젊은 작가까지 국내외 작가들의 개인전이 많이 열린다. 국제갤러리의 첫 전시는 3월 서울점에서 열리는 설치미술가 최재은의 개인전이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비무장지대(DMZ) 프로젝트 '자연국가' 등을 소개한다. 서울점에서는 같은 시기 하종현의 최근작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4월 말에는 부산점에서 정연두의 개인전이, 9월에는 서울에서 루이즈 부르주아와 갈라 포라스 김의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여성적 그로테스크'로 대표되는 장파의 개인전을 서울에서 열 예정이다.

갤러리현대는 첫 전시로 2월 신성희 개인전을 연다. 캔버스를 자른 천으로 매듭을 지어 묶는 '누아주'(Nouage·엮음 회화) 연작과 캔버스를 재단하고 박음질해 이은 '꾸띠아주'(couturage·박음 회화) 연작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4월에는 개관 5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고 그동안 갤러리와 함께 한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한다.

8월에는 한지 끝을 태우고 곧바로 불을 꺼 남은 조각을 섬세하게 배열하는 작업으로 알려진 김민정의 개인전과 올해 베네치아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한 이강승과 2023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미국 작가 캔디스 린의 2인전·아르헨티나 출신 설치미술가 토마스 사라세노의 개인전이 각각 갤러리현대사간동 신관과 본관·강남점에서 열린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